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찬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Youth Group Volleyball Tournament 가 비로 인해 연기가 되어

5 월 20 일(토) 오전 8 시에 시작합니다.

장소: 299 Rockland Lake Rd. Valley Cottage, NY 10989 Lot #2

Sunday School/Nursery School 은 오후 12 시에 같은 장소에서 Picnic 이 있습니다. (Parents, please join us! We will have BBQ and picnic together at the park!)

- 6 월 24 일에 Sunday School VBS 가 있습니다.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께 알려주시고 식사 및 진행과 관련하여 Volunteer 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부탁드립니다.

- 담임목사는 오늘부터 목요일(5/18)까지 Personal Retreat 기간을 갖습니다. Spruce Lake Retreat Center, Canadensis, PA

- 교우동정

오영숙 집사님 친모 이금순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5/11) 오전 7 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교회인 부전교회의 주관으로 토요일 오전 장례예배를 드렸습니다.

2017 년 5 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민홍기 집사/시편 66:8-20
이번 주 친교: 오영숙/윤정호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반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5월 14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20 장(통 41 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31:1-5, 15-16	김은영 집사
찬양(Choir)	“주님만 섬기리”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5:1- 15	인도자
설교 (Sermon)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218 장(통 369 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체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5. 7. 주일 설교 요약

약속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 (갈 4:21-31)

바울은 율법을 의지해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며 은혜 안에 누리는 자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의 해석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열린 새로운 생명과 그 은혜를 입어 얻은 새로운 눈과 귀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도 늘 듣던대로의 관습 속에 숨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자유자 사라에게 얻은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이삭의 후손인 자기들이 약속의 백성이며 이방인들은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해석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육체로는 소망이 없는 사라에게서 났으며 하나님께 드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한 자 사라의 후손, 약속의 후손입니다. 육체의 일, 혈통과 행위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유대인들이라도 종 하갈의 아들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은 육체의 일 - 혈통이나 소속, 행위 - 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서도, 개신교인이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자유합니다.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고 상황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한 일 때문에 - 죄이든 선행이든 - 종이 됩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면 율법을 지킨 선행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하는 책무입니다. 다 못 갚으면 죄스럽고 갚았다 생각하면 교만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기 어려운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도,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잘되면 자랑이고 못되면 원망입니다. 일이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상황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담대합니다.

옛날 종의 아들이 자유자의 아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탄은 육체의 일들을 들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의를 지적하며 교만을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한 보상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내어쫓으십시오. 경죄감을 내어쫓으십시오.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 구속을 믿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돌아선다면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의의 길을 걷도록 도우십니다. 다 지켰는데 왜? 하는 원망을 내어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완전해서 나의 요구와 판단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분이 당연해 주셔야 할 보상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분을 믿으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불신을 내어쫓으십시오. 그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격과 상황에 묶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